

질경이와 함께 놀아요

남산공원 산책길에 낮게 무리 지어 자라는 풀!
이 풀은 사람이나 동물에게 밟히면 오히려 더 잘 자란다고 해요.
왜 그런지 같이 알아볼까요?

안녕?! 난 질경이야!

마구 짓밟혀도 다시 살아나는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서 '질기고 질기다'란 뜻에서 질경이라고 불러요.



잎



꽃



열매

질경이의 살아남기 전략

모든 식물의 살아남기 전략은 씨앗을 부모로부터 멀리 보내는 거예요.
그래서 씨앗에 날개, 털, 갈고리, 끈끈한 액 등의 장치를 만들어 멀리 이동 시킨답니다.
그럼 질경이는 어떤 전략을 쓸까요?



질경이 씨앗은 타원형 주머니 안에 들어 있어요.

사람이나 동물이 지나갈 때 씨앗이 튕겨져 멀리 이동해요.
이리저리 치이더라도 꽃을 피울 수 있는 희망에 질경이 잎은 오늘도 푸르게 웃습니다~

질경이로 지혜로운 전통놀이 즐기기



질경이 제기

옛날에는 컴퓨터 게임이나 스마트폰이 없었기 때문에
아이들은 돌로 뛰어다니며 자연물을 이용하여
재미있는 놀잇감을 만들어 놀았어요~
오늘 만큼은 전자기기를 내려놓고 자연물을 활용한
전통놀이를 같이 해볼까요?

질경이 제기 만드는 방법



- 01** 질경이 잎을 15장 정도 준비해주세요.
*혹시 질경이 잎을 구하기가 어렵다면 넓은 나뭇잎을 모아주세요.



- 02** 앞자루를 앞몸 바로 밑에서 꺾어 섬유질을 남겨주세요.



- 03** 가지런히 정리한 섬유질을 잡고 위아래로 흔들어서 섬유질이 엉키게 해주세요.



- 04** 서로 뒤엎킨 섬유질을 한 두 번 돌려 묶어 매듭을 지어주세요.



가족들과 제기를 만들며 자연과 친해지고
제기를 차면서 건강과 행복도 느껴보세요.

만든이 : 공원여가와 코디네이터 김민숙
도움 : 공원여가와 김윤희